

## 주민의 기억이 남구의 역사 ‘울고 웃는 50년 추억여행’

남구는 삼한시대에는 변한,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소속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부터 동래군으로 칭해져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동래부에 소속되었다. 1949년 8월 15일 시제 실시와 함께 부산시에 속하고 정전협정 이후 1953년 9월 10일 부산시 대연출장소 소속이 되었다. 1967년 1월 1일 구제 실시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와 동래구 수영출장소로 개편되었고 1973년 3월 10일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로 승격되었다. 1975년 10월 1일 변두리와 도심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의 인접 부분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확정해 남구로 승격 발족했다. 구 명칭은 종래 동래부 남면에 속해 있어 ‘남구’로 정해졌다.



황령산 봉수대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남구 전경.

◀ 사진 공모전 ‘남구와 당신의 이야기’ 작품들. 10월19일까지 평화공원 전시



## 아동친화도시, 금융자사고 유치… 남구를 바꾼 민선8기 역점사업

민선8기 남구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의 중심은 늘 주민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행정에 주력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민선8기 남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돌아 본다.

### 주민 안전 만큼은 타협·양보 없어

**주민 안전** 남구는 행정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오로 주민 안전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었다. 문현·대남지하차도에 비상사다리와 실시간 통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해 관내 곳곳에 생수냉장고, 양상양상, 버스정류장 에어컨 등 생활 속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 달맞이축제 때 달집태우기 행사를 전격 폐지하고 대신 친환경적인 LED대보름달을 설치해 안전과 탈탄

### 국내 최초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보육·교육** 국내 최초 ‘어린이집 식판 세척 및 소독지원’과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 등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육 외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부산 최초로 연포초등학교에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하고 컨테이너 트랙이 자주 다니는 우암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200m 구간에 8톤 차량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들이 모여 남구는 올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지정됐고 이어 지난 6월 국내 첫 금융 자사고 우원협상 대상지로 남구가 선정되는 등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남구제로시티’ 등 사회적 약자 챙겨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행정도 잊지 않았다. 특히 오은택 남구청장의 휠체어 체계를 계기로 ‘남구 제로시티 프로젝트, 1cm 벅’을 추진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복지관 일대의 보도를 정비한 데 이어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사회적약자 배려길을 완공하는 등 무장애도시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 ‘물고기 낚는 기술’로 상권 활성화

**경제 활성화** 민선8기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에 주력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성·부경대 대학로 일원의 상인들이 주축으로 하는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을 통한 대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침체된 대학로에 자체 경쟁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관내 미등록 시장 인 대연골목시장과 대연중앙골목시장은 은누리상품권 유통이 가능한 골목명상점가로 지정한 사업도 상권 경쟁력을 높여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실질적 복지정책·주민참여 활발

**생활 밀착** 거시적 정책 수립 외에도 일상 속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전개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QR코드를 이용한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종량제 봉투 인하 등 실질적이 복지정책과 주민참여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쳤다. 또 최근에 끝난 달빛아이도서관 축제, 평생교육 페스티벌 등 문화여가 행사가 주민 행복감을 높였다.

### 지속가능 발전 목표 5대 전략 수립

**미래 비전 선포** 남구는 지난 7월 1일 민선8기 3주년 행사 일환으로 ‘오름 남구 미래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5대 전략과 14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65개의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행정은 뿌리고 가꾸는 대로 수확하는 농사와 같다는 각오로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 남구 주요 연혁

삼한시대 변한 소속  
삼국시대 신라 소속  
통일신라~조선시대 동래 소속  
1914.3.1. 동래군 서하면, 용주면  
1936.4.1. 부산부와 부산진출장소에 편입  
1953.9.10. 부산시 대연출장소 설치  
1975.10.1. 남구로 승격, 개칭  
1995.3.1.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

#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도시 남구



- 1 대동골문화센터 준공(2015. 8.)
- 2 남구방상정 개장(2018. 5.)
- 3 민선7기 출범(2018. 7. 1.)
- 4 민선8기 출범(2022. 7. 1.)
- 5 용호별빛공원 조성(2022. 12. 7.)
- 6 우암동 소맥주택 원형 복원(2023. 6. 8.)
- 7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개관(2023. 11. 2.)
- 8 UN평화문화특구 대통령상 수상(2023. 12.)
- 9 오륙도인생유반전지원센터 개관(2024. 4. 12.)
- 10 소금공원 조성(2024. 6. 4.)
- 11 대연지구 풍수해생태원 정비사업 선정(2024. 9.)
- 12 우암도서관 개관(2024. 10. 16)
- 13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2025. 6. 2.)
- 14 부산남구문화재단 출범(2025. 10. 30.)



## 남구 50년사 갈무리 도서 발간

구정 역사·주민 이야기 등 남구의 어제와 오늘 담겨

남구의 50년 역사가 한권의 책으로 집대성되었다. 남구는 개청50주년을 기념해 책자 ‘부산남구 50년’을 최근 발간했다. 1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는 말 그대로 남구의 50년 발자취를 모두 담았다. 구청으로 승격된 1975년 10월부터 올해 2025년까지의 구정의 모든 행적이 망라됐다. 책자는 627명의 구민들 얼굴 사진과 100명의 주민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포토 아카이브 50년의 기록 △남구의 자연과 역사 △구정의 성과 그리고 새로운 도약 △우리동네 남구의 변화 △남구의 파트너 주요기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책자는 단순 행정 사료집에 머물지 않고도 감각적인 편집과 다채로운 구성, 스토리 등으로 채워져 일반 주민들도 쉽게 책을 넘길 수 있게 했다. 특히 주민 공모를 통해 수집한 옛 사진들과 관내 학포사연구위원들이 맛깔스러운 문장으로 풀어낸 마을 이야기, 역대 민선구청장들의 인터뷰 등 읽는 재미를 더한다. 책자는 개청 50주년에 맞춰 10월 1일자로 출간돼 관내 도서관과 유관기관 등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607-4014



### 남구를 바꾼 50대 뉴스

- 1 남구청 개청(1975. 10. 1)
- 2 부산박물관 개관(1978. 7. 11)
- 3 자치구제 실시(1988.5.1.)
- 4 제1대 남구의회 개원(1991. 4. 15)
- 5 부산문화회관 개관(1993. 4. 18)
- 6 동서고개로도 개통(1994. 12. 25)
- 7 남·수영구 분구(1995. 10. 1)
- 8 황령터널 개통(1995. 6. 15)



## 반세기 전 그때 그 자리에 옛터표지석 설치 ‘감회’

### ■유여곡절 많았던 남구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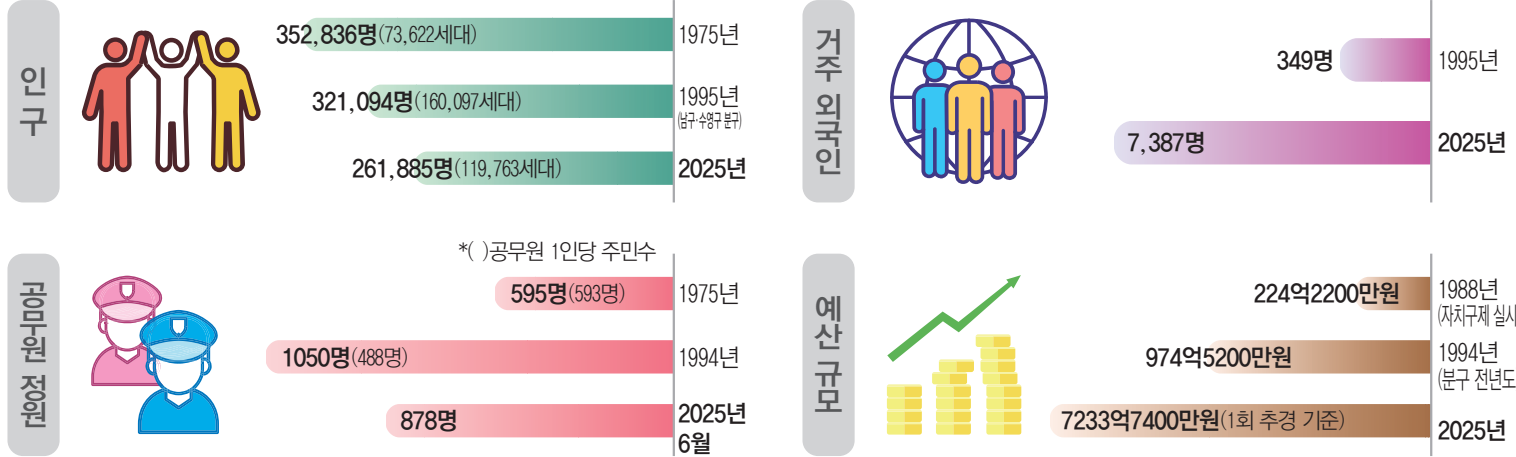
9월 22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남구청 옛터 표지석(아래 사진) 제막식.

50년 전 남구청 개청 당시 첫 구청사로 사용된 대연출장소가 있던 남구노인복지관에 ‘남구청 옛터 표지석’이 설치됐다. 제막식은 지난 9월 22일 열렸다. 표지석에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그 출발의 의미를 이 자리에 새깁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남구청사는 1975년 10월 남구가 출범하면서 기존 부산시 대연출장소(현 남구노인복지관 자리) 건물을 사용하다가 1978년 1월 새청사(현 수영구청)를 건립해 이전했다. 1995년 3월 수영구와 분구 이후 경성대학교 앞 21센츄리시티 오피스텔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다 1998년 4월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를 신청사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1999년 10월 임시청사를 건립해 사용했다. 현재의 청사는 2005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07년 8월 완공됐다. 임시청사 자리에는 지금의 구민공원이 조성됐다.

신청사는 남구의 상징인 오륙도를 형상화해 역동성과 비상을 표현했다. 유리의 투명성과 아트리움 구조를 통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열린 청사 이미지를 구현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및 조직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2월 남구청 별관을 준공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의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50년 남구의 변화



- 1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2013. 12. 20)
- 2 부산항대교 개통(2014. 5. 22)
- 3 부산국제금융센터(BFC) 준공(2014. 6. 30)
- 4 대연혁신도시 조성(2013. 5. 31)
- 5 대연1·2동, 우암1·2동 통합(2013. 7. 1)
- 6 오륙도스카이워크 개장(2013. 10. 18)
- 7 김만창의문화촌 개관(2013. 11. 20)

